

2019년 시·도공무원 호주 글로벌정책리서치 결과 보고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호주사무소

- 2019년 시·도공무원 - 호주 글로벌정책리서치 추진 결과보고

I 개 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주최로 매년 호주 특정 도시에서 개최하는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호주 지방정부 공무원과의 실질적인 아이디어 교류 및 한국 참가 공무원의 글로벌 문제해결 능력 강화
 -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주최 대회로, 팀을 구성하여 주제에 걸맞은 창의적·논리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경쟁 및 아이디어 공유를 도모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축제 형태를 띤 대회임
- 단순 기관 방문 및 시찰 형태의 연수를 넘어, 미래 지방분권시대 공무원의 글로벌 교류 역량증진 및 **향후 프로그램 국내 도입 방향 모색**
- 경연 참가 외, 지방정부 주도 사회적 조달 및 일자리창출 주제 정책 워크숍·기관방문 연수 및 도시재생사업 시찰 병행

2 연수 일정

- 기간 : 2019. 7. 27.(토) ~ 8. 4(일), 8박9일
- 참가대상 : 시도·시군구 5급 이하 실무 공무원 12명
 - ※ 협의회 본부 : 2명, 호주사무소 : 3명
- 주제 및 참가내용
 - 지방정부 주도 사회적 조달 (QLD주 브리즈번시)
 -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경연대회 참가 (북부준주 다윈시)
 - 도시재장사업 현장 시찰 (NSW주 시드니시)

3 일 정 표

구 분	시 간	연수내용	비 고
7.27.(토) 1일차	18:05	○ 이동(인천공항→브리즈번공항)	항공
7.28.(일) 2일차	06:50 전일	○ 입국(브리즈번공항) 〈문화시찰 1〉 퀸즐랜드주 관광자원(골든 코스트 등) 탐방	전용버스
7.29.(월) 3일차	09:30~12:00 14:00~16:00 17:00~19:00	【기관방문 1】 퀸즐랜드주정부 정책 브리핑 - 퀸즐랜드주 사회적 조달 전략 【기관방문 2】 퀸즐랜드 사회적 기업 방문 〈경연대회 사전준비〉 행정경연대회 한국팀 소개 물품 및 자료 등 준비	전용버스
7.30.(화) 4일차	09:40~14:00 15:00~19:30	○ 이동(브리즈번공항→다윈공항) 【행정역량경연대회 1일차】 - 한국팀 오리엔테이션 참가 - 다윈 불링 클럽(대회주제 관련) 시찰 - 환영식 참가 (한국팀 소개)	항공/ 전용버스
7.31.(수) 5일차	전일	【행정역량경연대회 2일차】 - 팀 셋업(한국팀 소개부스 설치) - 경연대회 과제 1~3 수행	전용버스
8.1.(목) 6일차	전일	【LGPA 총회 개최】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세미나 참석 【네트워킹 오찬】 - 한호 지방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수행 (Peer-To-Peer 버디프로그램) 【행정역량경연대회 3일차】 - 라이브 태스크(Live Task) 수행 ※ 경연대회 과제 프레젠테이션	전용버스
8.2.(금) 7일차	전일	〈문화시찰 2〉 다윈주 관광자원 탐방 【행정역량경연대회 4일차】 - 한국 우수행정사례(전자정부) 소개 ○ 이동(다윈공항→시드니공항)	전용버스 /항공
8.3.(토) 8일차	09:30~19:00	〈문화시찰 3〉 도시재생 관광자원 탐방 - 바랑가루, 오페라하우스 등 ※ 연수단 간담회 : 오찬 시 실시	전용버스
8.4.(일) 9일차	07:45~17:45	○ 이동(시드니공항→인천공항)	항공

4 참가자 명단

순번	소 속	부 서 명	직 급	성 명
1	전 라 북 도	예 산 과	행 정 9	소 보 미
2	경 기도 화 성 시	자 치 행 정 과	행 정 7	박 근 서
3	강 원 도	총 무 행 정 관 실	행 정 6	김 진 성
4	경 상 북 도 안 동 시	행 정 지 원 실	행 정 7	류 정 인
5	금 산 군	기 획 감 사 실	행 정 7	지 권 열
6	충 청 남 도	국 제 통 상 과	행 정 6	장 선 희
7	부 산 광 역 시 북 구	기 획 실	행 정 8	김 나 영
8	경 기도 양 평 군	지 역 개 발 과	시 설 7	최 길 환
9	경 기 도	수 질 관 리 과	행 정 6	박 남 출
10	경 상 남 도 창 원 시	인 사 조 직 과	전 산 6	정 용 훈
11	경 상 남 도 창 원 시	평 생 교 육 담 당 관	행 정 8	윤 나 리
12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총 무 과	지 방 전 문 경 력 관 나 군	이 상 용

II 글로벌정책리서치 참여 결과

1 QLD주 브리즈번시 : 정책탐방 (지방정부 주도 사회적 조달)

□ 퀸즐랜드주정부 사회적 조달 정책 연수

- 일 시 : 7. 29.(월) 10:00 ~ 16:00
- 장 소 : The Gardens Club (75 Gardens Point Road, Brisbane City QLD)
- 면 담 자 : (Mr) Dinneen Francis 퀸즐랜드주정부 사회적조달 자문관
- 연수주제 : 퀸즐랜드주정부 사회적 조달 정책 브리핑 및 관련 사회적 조달 기업 현장시찰
- 세부일정
 - 09:30-09:45 The Gardens Club (사회적 기업 카페)
 - 09:45-10:45 프리젠테이션 (사회적 조달 정책, 사회적 기업 전략, 퀸즐랜드 사회적 기업 협의체 소개 등)
 - 10:45-11:30 모닝티 & 네트워킹

※ 사회적 조달

공공 구매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업이익, 환경지속성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것

※ 퀸즐랜드 사회적 조달 전략

지방정부 주도(법제화)로 지역 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정부 입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윤리경영, 장애인, 여성기업 기회 부여) 도모

○ 주요내용

- 퀸즐랜드 주정부 공공 조달시, 퀸즐랜드 주정부 소재 기업에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려하여 30%까지 가점 부여하여 선정
 - ▶ 특히 음식과 음료에 대해 ‘Buy Queensland first’ 정책 우선 실시
 - ▶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 커뮤니티 창출을 위해 청년 실업 감소 및 직업 창출 가능 기업 및 분야에 사회적 조달 정책 적용
-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및 원주민 고용 가능성,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조달 정책 운영
 - ▶ 청년고용을 위해 사회적 공공조달 계약 체결시 인턴십·훈련프로그램 등 포함
 - ▶ 원주민 운영 기업들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조달 정책 수립시 포함
 - ▶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 기업 운영에 대해 가점 부여
- 투명한 사회적 조달 정책 운영을 위해, ‘The Queensland Government Procurement Committee’ 별도 설립 및 정책 결정 참여



< 사진 : 퀸즐랜드주정부 정책브리핑 현장 >

□ 퀸즐랜드 사회적 기업 현장시찰

- 일 시 : 2019. 7. 29.(월) 14:00-16:00
- 장 소 : HELP Employment & Training
※ 520 Curtin Ave East, Eagle Farm QLD 4009
- 면 담 자 : Greg Luck (총괄관리자)
- 연수내용 : 사회적 기업 운영방법, 주정부 사회적 조달 시책 내용
- 투명한 정부 보조금 사용을 위해 매년 회계 보고서 공개 및 정부의 회계 처리 준칙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 HELP Employment & Training

- 1968년 설립된 HELP(Help Enterprises Limited)는 장애인 구인/구직 지원 및 직접 생산활동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로, 900명 이상의 스태프와 약 35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각종 제조업 완제품 및 중간단계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음

□ 시사점

- 정부 보조금을 겨냥한 업체의 조악한 물품 제조 문제가 있어 주정부의 보조금 집행시 전문 위원회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퀸즐랜드 주정부의 퀸즐랜드주 소재기업 우대 조달 정책('Buy Queensland first')은 한국과 달리 제조업 뿐 아니라 농산품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고 있음
 - 호주 국가 차원에서는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주정부에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퀸즐랜드 주정부의 공격적인 사회적 조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



< 사진 : 퀸즐랜드 사회적기업(HELP) 시찰 >

② 2019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경연대회 참가

□ **대회개요** ※ 대회 공식명칭 : 2019 Australasian Management Challenge

○ 기간/장소 : 2019. 7. 30.(화) ~ 8. 2.(금), 3박4일 / 다윈시(북부준주)

○ 주 최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 영문명칭 : Local Government Professionals Australia (LGPA)

○ 참가대상 :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지방 공무원

○ 참가내용

- 현장에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하여 팀별로 행정역량 발휘하여(브레인 스토밍, 토론, 서면 보고서 작성, 과제 수행 등) 결과물 제출 및 발표

※ 2018년 본선 주제 : 인공지능(AI)와 지방정부 (우승팀)AI를 활용한 공감행정 제언 / (준우승팀)지방정부의 AI 활용사례

◎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경연대회 ◎

▶ 일정/장소 : 매년 7~8월 중 (3~4일간) / 호주 내 도시

▶ 주최기관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LGPA)

▶ 대회내용 : 대양주 지방 공무원의 행정역량 경연대회 개최

▶ 추진목적

- 대양주 지방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제형
- 지방정부 자체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타 지자체 사업 경험
- 팀별 문제 해결을 통해 소속직원 유대감 증대 및 업무경력 증진 등



<2019 대회 포스터>

○ 주요일정

- 7.30.(화) 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대회 과제내용과 관련된 기관 사전시찰

- 7.31.(수) 대회 본선 참가(한국팀 비경쟁) 및 과제 수행

- 8.1.(목) 버디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전체 시상식·만찬 참석

※ 버디 프로그램 : LGPA에서 제안한 한호 지방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으로, 호주 외교부 지원 확정(주한호주대사관 협업)

- 8.2.(금) 대회 참가 총평 및 마무리

□ 한국 대표팀 참가 관련

○ 참가배경

- 지난 25년간 호주·뉴질랜드 지방정부 공무원이 참가하였고, 주최 측 (LGPA) 제안으로 올해 한국팀이 시범적으로 특별 참가

※ 호주·뉴질랜드 참가팀과 달리, 한국팀은 순위 경쟁에 참여하지 않음

○ 참가목표

- 한국 지방공무원 협업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글로벌국제무대 경험 축적
- 한국 지자체별 정부 주요정책 홍보 등

○ 한국팀 선발 과정 및 운영

- 참가요건
 - ▶ 시도·시군구 5급 이하 실무공무원 12명(6명×2팀)
 - ▶ 적극적, 창의적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직원
 - ※ 영어회화·문서작성 및 컴퓨터 발표도구 활용 가능 직원으로 모집
- 진행일정
 - ▶ 2019. 2. 28.(목) ~ 3. 8.(금) : 참가자 모집(추가)
 - ▶ 2019. 3. 13.(수) ~ 3. 15.(금)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본부 연찬회)
 - ▶ 2019. 4월 ~ 7월 : 참가 준비

< 호주/한국 대표단 참가 프로세스 비교 >

시 기	일반적인 참가 절차 (호주 대표단)	한국 대표단 참가 절차
2월	참가 등록	참가자 모집(2-3월)
3-4월	모의과제 부여	자체 준비 (오리엔테이션 포함)
5-6월	모의과제 주제, 지역별 예선	
7.30.(화) - 7.31.(수)	< 본선 경연 참가 > 호주·뉴질랜드 지역예선 통과팀(8팀) + 한국 대표단(2팀) (주제 발표, 정해진 시간 내 과제 수행 → 심사)	
8.1.(목)	최종 발표(Live Task) 실시 및 시상식	

○ 멘토지원

- 경연대회에는 각 참가팀마다 ‘멘토’ (대회 유경험자 등)가 참가 경험 공유 및 방향 설정 지원하는 바 한국팀은 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에서 멘토 역할 수행하여 참가팀 지원

※ 최종 참가팀 리스트

구 분	참 가 팀
호 주(7)	MacDonnell Regional Council & Alice Springs Town Coucil, NT
	Kingborough Council, TAS
	City of Onkaparinga, SA
	City of Subiaco, WA
	Cairns Regional Council, QLD
	Northern Beaches Council, NSW
	Glen Eira Council, Vic
뉴질랜드(1)	Western Bay of Plenty District Council, NZ
한 국(2)	Dynam!c HANKUK A
	Dynam!c HANKUK B

□ 대회 세부내용

가. 대회 1일차 (7.30. 화)

○ 다윈 불링 클럽 방문

- 주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커뮤니티케이션 거점 공간 역할 수행

※ 본대회 경연 문제와 관련된 기관으로, 결선 참가 전 사전 답사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수익창출 방안, 지역주민 활용도 등 질의

○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경연대회 환영식 개최

- 호주 및 뉴질랜드, 한국 팀별 소개 및 참가 소감을 연극, 롤 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여 발표



< 사진 : 대회1일차 경연대회 관련 기관 시찰 및 환영식 >

나. 대회 2일차 (7.31. 수)

○ 팀 셋업(Team Set-up)

- 참가팀 소속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 공간 구성 및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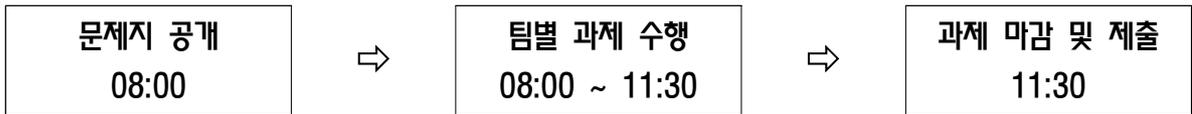


○ 본경연 태스크 1 수행 및 제출 ※ 경연대회 모든 과제 독해와 보고서 제출 영어로 수행

- (경연문제) Veritas 지역(가상의 공간 설정)의 불링클럽은 1926년에 만들어진 이래, 최근 이용자 및 운영 봉사자 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매년 부채가 늘어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로부터 \$75,000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시 관계자로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제한시간 내 팀별로 협업하여 보고서 작성
- (팀별 보고서 제출) 문제지에 제시된 재정적 수치 및 통계, 기타 배경설명 등을 분석하여, A팀의 경우 해당 불링클럽이 회생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공공자금 투여 대신 불링클럽을 폐쇄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대안 제시하였으며, B팀의 경우 불링클럽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주되,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과제 수행 프로세스 >



※ 한국팀 간 상의 불가 및 결과물 뿐 아니라 과제시간 준수, 팀워크 등 수행 과정도 평가 포함 (한국팀의 경우 비순위 경쟁에 참여하였으나, 전 과정 동일하게 평가 진행)



- (한국팀 제출 보고서에 대한 LGPA측의 피드백) 양 팀 모두 주어진 행정 과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제한된 시간 내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과제를 완수한 것은 매우 훌륭함

< LGPA측 피드백 >

A팀	<p>Task 1 – Bankrupt Bowling Club</p> <p>The team prepared a good response to this task. They correctly recognised that the club wa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at they were unlikely to remain sustainable even with the provision of a loan of \$75,000 from the Council.</p> <p>Given these financial difficulties the team concluded that it was inefficient to loan money to the club and recommended an alternative use for the site as public housing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housing for young families. This was a valid solution as it proposed making use of a currently underperforming asset to meet an unmet need within the community.</p>
B팀	<p>Task 1 – Bankrupt Bowling Club</p> <p>The team provided a very good response to this task. They recognised that the Bowling Club wa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needed assistance to be sustainable into the future. They also recognised the positive influence that the Club had within the local community by providing a healthy environment and social meeting place.</p> <p>We particularly liked the innovative recommendations included within the report to assist the Club to generate more revenue so that they could remain in operation. Well done!</p>

○ 본경연 태스크 2 수행 및 발표 (A팀 및 B팀 합동 과제)

- (경연문제) Veritas와 한국의 무역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Veritas에 온 한국 파견단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의 어떤 제품을 Veritas 지역에 수출할 것인지, Veritas 지역의 성장하는 제조업 생산라인을 해당 수출품 판매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한국의 관광상품을 Veritas지역에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한 시간 내 A팀과 B팀이 협력하여 내용 작성 및 발표 준비
- (한국팀 발표) 한식, BTS(방탄소년단) 등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린 아이템을 활용하여 문화 강국 한국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발표 자료를 시각적으로 준비, 한국이 매력적인 문화 교류 국가임을 설명



- (한국팀 발표에 대한 LGPA측의 피드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뛰어난 그래픽 효과를 활용하여 한국이 매력적인 수출입 대상국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나, Veritas라는 도시의 비교 대상에 맞게 국가 단위 보다는 도시 단위에서 Veritas가 제조업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수출 및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임

< LGPA측의 피드백(일부 발췌) >

Task 2 – Korea Trade Presentation

The joint presentation between the Korean teams was to identify the economic opportunities for trade between Veritas and Korea. The teams struggled in the preparation for this task in debating whether they should focus on a certain province or City in Korea as opposed to the entire country. It was believed to be easier to compare two cities/provinces rather than entire countries. In the end they decided to include both elements which appeared a bit disjointed but did cover more specific opportunities that Korea could offer. The teams were able to identify and highlight the culinary, ecological, tourist, technology and industrial sectors that Korea has strength and currently engag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refore identified the key sectors and gave relevant examples. In addition, they identified cultural exports that Korea has to offer in the guise of K-pop etc. A comparison of Australia and Korea was prepared to show differences between population, markets and

○ 본경연 태스크 3 수행

- (경연문제) Veritas 시에서 수행한 조직 내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안전문제 인식 정도, 안전문제 발생시 보고 체계 등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조직 내 다른 부서들 간의 통계조사 차이 분석 및 조직 내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서 작성하여 Health and Safety Committee에 제출할 것

The image shows a task sheet for a management challenge. It includes a table of core competencies, a background story about a bowling club, and a bar chart titled 'Departmental Results' comparing three departments across six safety categories. Below the chart are instructions for preparing a report to the Health and Safety Committee.

Core Competency	Marked
THINK Strategically	X
LEAD and Influence	X
COMMUNICATE and understand	X
RELATE and collaborate	X
ANALYSE and assess	X
DECIDE with confidence	X
ENGAGE and build trust	X

Safety Category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Corporate Services	City Services
Knowing Safety	4.2	4.3	4.1
Involving for Safety	3.8	3.9	3.7
Reporting Safety	4.4	4.2	4.3
Resourcing Safety	3.5	3.6	3.4
Leading Safety	4.0	4.1	3.9
Communicating Safety	3.7	3.8	3.6

< 본경연 태스크3 문제지 >

- (팀별 보고서 제출) 문제지에 제시된 통계표와 수치, 기타 배경설명 등을 분석하여, A팀의 경우 Veritas 시 내에 잠재된 안전 문제는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한 보고체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이라는

점을 밝히며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B팀의 경우 조직 내 생산성을 높이면서 저비용으로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해 안전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



- (한국팀 제출 보고서에 대한 LGPA측의 피드백) 두 팀 모두 해당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좋은 답변을 작성하였음. A팀의 경우 조직의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매년 이와 같은 안전 조사(설문)를 시행하고 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정책을 수행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부분이 훌륭하였음. B팀의 경우 조직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이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음을 상술하며, SWOT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안전분야를 통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부분이 훌륭하였음

< LGPA측 피드백 >

<p>A팀</p>	<p>▪ Task 3 – Safety Culture Challenged ◊ The team provided a very good response to this task. The report identified that there were a couple of key underlying issues regarding safety within the organisation. In particular that safety was not top of mind for staff,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reporting of incidents. ◊ ◊ The report also included a comprehensive range of strategies to address the safety culture concerns at Veritas. We were impressed that these strategies were tailored to address the focus areas that were identified in the survey as underperforming which wer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olving for safety ◊ • Reporting safety ◊ • Leading safety ◊
<p>B팀</p>	<p>▪ Task 3 – Safety Culture Challenged ◊ The team provided a very good response to this task. The report was well structured and easy to read and demonstrated that the team ha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s presented within the scenario. ◊ ◊ The report detailed the importance of a safe work environment for Veritas and the resulting benefits including increased productivity, less injuries in the workplace and cost savings. The report also identified that the most recent safety survey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were some areas for improvement across Council Departments in their safety culture and</p>

다. 대회 3일차 (8.1. 목)

○ 네트워킹 오찬 : 버디프로그램(Peer-To-Peer)

- 「2019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경연대회」 시, 한국-호주 지방공무원의 상호 교류증진을 위하여, 참가 공무원 1:1 매칭을 통한 네트워킹 및 문화교류
- 버디프로그램 향후계획(안)
 - ▶ 추진내용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LGPA)제안에 따라, 경연대회 후속으로 대회 참가 한호 지방공무원의 상호 방문 연수프로그램 추진 예정
 - ▶ 추진일정
 - 2020. 3월경 : 호주 측 참가자(2명) 시도지사협의회 연찬회 참석·세션 발표 및 호주 대표단의 한국 ‘친구’ 지자체 방문
 - 2020. 8월경 : 한국 측 참가자(2명) LGPA 연차총회 방문 및 발표



○ 시상식 참석 및 수상

-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A팀 및 B팀 공동) 특별 참가상(2019 Australasian Management Challenge Participant) 수상
- ※ LGPA측에서 한국대표단이 대회에 최초로 참가(비순위 경쟁)하여 호주 대표단과 함께 과제 수행 완수한 것에 대하여 특별상 대상팀으로 선정 및 시상



라. 대회 4일차 [8.2. 금]

○ 라이브 태스크(Live Task) : 한국 전자정부 사례 발표

- 한국 지방정부 우수 행정사례 중, 공공데이터 활용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례
 - ▶ 민원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상권·역세권 등 지역 정보를 분석된 형태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공간적·시간적 편의 제공



③ 2019년 대양주 행정경연대회 참가소감 및 총평

- (팀단위 프로젝트 경험 관련) 팀별로 협업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를 분담하며 토론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이, 한국 공무원 생활 중에 겪어보지 못한 것이어서 낯설기도 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른 소속기관과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여 협력하면서 각자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어 보람 있었음
 - ⇒ (참가자 제언)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방식의 경연대회이므로,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및 지방공무원의 행정경연대회 개최한다면 지방공무원간의 역량증진, 정보 교류 및 협업 체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언어 관련) 비록 비순위 경쟁으로 참여했으나, 호주팀과 비교해 현장에서 공개되는 과제와 각종 자료에 대해 한글로 번역 및 영문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 ⇒ (참가자 제언) 과제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주어지거나, 번역 전문직원이 과제 수행에 함께 한다면 다른 호주팀과 경쟁부분에 동일하게 참여 가능할 것임
- (대회 준비 관련) 한국대표단이 최초로 참석하는 해였던 만큼, 경연대회 자체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
 - ⇒ (참가자 제언 1) 내년에도 한국대표단의 경연대회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올해 참가자들이 다음 연도 참가자의 멘토가 되어 실제 경연 참여 노하우를 안내해주면 좋을 것
 - (참가자 제언 2) 경연 참여 전 과정에 걸쳐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릴 기회가 많으므로, 사전에 문화 홍보물, 지자체 정책 책자, 한국에 대한 각종 통계 지식 등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서 참가한다면 좋을 것임
- (호주 문화 체험 관련) 대회 참가를 통해 호주 공공조직의 다양한 문화와 긍정적인 공무원 조직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주최 측에서 결선 주제를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하는 등 한국 참가들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준 것에 감사함

4] 향후계획 및 제안점

□ 향후계획

가. 2019년 대양주 행정경연대회 후속 프로그램

- 한호 지방공무원 상호 방문 연수프로그램 추진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LGPA)제안에 따라, 경연대회 후속으로 대회 참가 한호 지방공무원의 상호 방문 연수프로그램 추진 예정
 - 호주 측 참가자(2명) 시도지사협의회 연찬회 참석·세션 발표 및 호주 대표단의 한국 ‘친구’ 지자체 방문 (2020. 3월경)
 - 한국 측 참가자(2명) LGPA 연차총회 방문 및 발표 (2020. 8월경)

나. 2020년 대양주 행정경연대회 참가 관련

※ 2019년에는 시범적으로 대양주 행정경연대회와 기획연수 통합 운영하였으나, 2020년 통합 실시 여부는, 시도협 본부 및 참가 희망 지방정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참가 방안(1)

- 2019년과 동일하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10~12명의 참가자를 모집(영어 의사소통 및 컴퓨터 활용 능력 필요)
 - ▶ 장점 : 한국 지자체 공무원 간의 정책교류 및 아이디어 공유 가능, 한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우수 행정 사례 경연 활용 가능
 - ▶ 단점 : 경연대회 전 과정이 팀으로 활동하는 반면, 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간의 팀워크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대회 참가 전 사전 네트워킹 강화로 팀워크 보완 가능

○ 참가 방안(2)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하여, 동일 지자체에서 한 개의 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참여
 - ▶ 장점 : 같은 배경을 지닌 공무원간의 협업으로 팀원들 간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이고 해당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홍보활동 가능
 - ※ 호주의 경우 동일 지자체에서 1팀씩 구성하여 참가
 - ▶ 단점 : 개인의 참여 희망의사와 별개로 특정 지자체에 기회가 한정될 수 있음

□ 제안점

○ 대양주 행정경연대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 지방정부 행정축제’ 도입

- 대양주 행정경연대회는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LGPA) 주최로 호주 지방공무원들이 동일 지자체 공무원과 한 팀을 이루어 타 지자체 공무원과 행정분야 역량경연대회를 치름
- 경연의 목적은 경쟁이 아니라 참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자체 간 교류 증진에 있으며, 실제 결선 대회 또한 △지자체간 홍보

활동, △프레젠테이션, △팀별 공동 문제해결, △시상식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간의 교류와 화합을 지향하는 축제의 성격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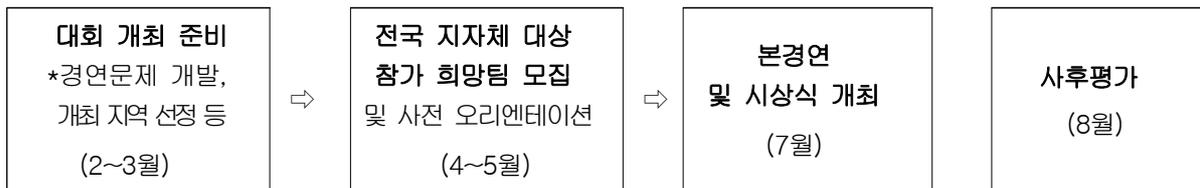
- 한국 또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연 대회이자 축제의 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탑다운의 평가방식이 아닌 지방공무원 스스로가 소속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 및 홍보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개인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증진시키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소속감 강화 및 △창의적이고 소통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타 지자체와의 정책 교류 가능성 증진 도모 가능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 현재 지방정부의 행정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17개 시도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관련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 등이 있으나, 중앙 정부가 평가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평가임

- 연중 1회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전국 지자체 대상 희망 팀 참가 모집하여(팀별 약 6명) 지자체 사업 및 팀별 홍보, 본경연 진행(수행 과제 당일 공개) 및 평가, 시상식 개최 등

※ 대회 일정(예시)



III 호주 문화·도시재생 수범사례 시찰

□ 시드니 지역 도시재생사업 시찰

○ 시드니 달링하버(Darling Harbour) 수변재개발 사례

- 19세기부터 정박시설, 하역장으로 활용되던 지역을 다른 수변 시설과의 접근성, 수변 활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재개발한 사례

※ 1차 개발(1788-1825), 2차 개발(1826-1983), 3차 개발(1984-2000년대)

- 수변개발의 이상적 모델(전통적 항구 기능 유지)로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형태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위락시설 유치 및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한 마케팅을 실현하였음

○ 바라가루(Barangaroo) 도시재생사업

- 2003년-2024년에 걸친 NSW주정부 사업으로, 2024년경 연간 2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 3,500개의 신규 주택, 20억호불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현재 진행형 도시재생사업임
-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NSW주정부 토지소유권 유지 및 사업시행자 개발의무부여), △대중교통 접근성(기차역 출구, 2024년경 바라가루 역 개통), △지역공동체 및 공공예술 장려 시책이 주요 특징임



붙임 2 2019 대양주 행정경연대회 참가 관련기사

< 안동시 보도자료 기사화 중 일부 >

8/20/2019
경북도민일보

인쇄하기

HOME >

선진IT기반 효율적 행정 사례 소개... 한국 공무원 역량 과 시

☞ 정운홍기자 | ☉ 승인 2019.08.15

호주 주관 행정역량대회서
류정인 안동시 공무원 포함
한국팀 특별 참가상 수상



대양주지역 행정역량경연대회에 참가한 한국팀 안동시청 류정인(오른쪽 두번째) 주무관.

호주지방정부연합회가 주관하는 '대양주지역 행정역량경연대회'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가해 특별 참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한국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안동시 행정지원실 류정인 주무관은 세계 인터넷 및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표해 현지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